중용장구中庸章句 새겨보이

□

權 五 達
편집위원

1. 중용장구中庸章句 소고小考 (승전承前)

〈군례사마법軍禮司馬法〉 155편에 대해 요진종이 말하였다. "〈사마법司馬法〉이라는 하나의 책은 태공太公(대략 기원전 1128 1015, 성은 강姜이고, 씨는 여呂이다. 이름은 상尙이고, 다른 이름은 망望이다. 자는 자아子牙이고, 강상姜尙 또는 여상呂尙으로 불리며, 존칭은 태공망太公望 또는 강자아姜子牙 · 강태공姜太公이고 무왕이 존경하여 사상보師尙父라 불렀다고도 한다. 성왕成王 때 제齊를 봉지로 받아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고, 그의 병법이 후대에 〈육도六韜〉가 되었다)으로부터 손자孫子(기원전 544 470, 본명은 손무孫武이고 자는 장경長卿이며 중국에서는 병성兵聖으로 불린다. 제나라에서 출생하여 초楚나라를 거쳐 오吳나라의 대장군이 되었다. 저서에 〈손자병법孫子兵法〉이 있다) · 오자吳子(대략 기원전 440 381, 본명은 오기吳起이고, 위衛나라 출신으로 노魯나라의 장군이 되었다가 다시 위魏나라의 장군이 되었다. 저서에 〈오기병법吳起兵法〉이 있다) · 왕자성부王子成父(기원전 643 ?, 원래 성명은 희삼姬森이고, 제 환공齊桓公 때 대부이며, 왕씨王氏의 시조이다)까지 모두 논술한 저서이다. 제나라 경공景公(? 기원전 490) 때 재상 안영晏창(? 기원전 500, 안자晏子)의 추천을 받아 대장군에 오른 사마양저司馬穰 (성은 전田이고 이름이 양저穰 이다. 저서에 〈사마양저병법〉이 있다)에 이르러서는 또 스스로 병법을 거듭 자세히 밝히게 된 것이다. 제 위왕齊威王(기원전 378 320)은 또 대부大夫를 시켜 논술하고 아울러 양저가 지은 것을 그 가운데 더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의 저서를 합했기 때문에 155편으로 많아졌고, 고서古書에는 후대 사람들이 점점 추가하여 길게 늘어나는데 이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장순휘가 말하기를 "이 155편의 책은 사실 고대 병가兵家와 관련된 언어를 모아 베낀 것이다. 그 후 여러 작가의 작품이 각기 단행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처럼 풍부한 논저論著가 오늘까지 전하는 것은 겨우 5편이다. 본래 예문지 편말에 부가한 주석에 말하기를 '〈사마법司馬法〉 1인 학자의 155편이 포함되어 있다' 하였고, 또 〈병서략兵書略〉 권모류權謀類 끝의 주에서 '〈사마법〉이 나왔는데 예禮에 들어 있다' 하였다. 〈칠략七略〉의 병서 권모權謀에 이 책이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반고가 예류禮類에 옮겨 넣었다. 책이름 머리에 '군례軍禮' 두 자를 씌운 것은 대개 반씨(반고)가 부가하여 체體와 용用을 밝힌 것이다" 하였다.

〈고봉선군사古封禪群祀〉 22편이 있다.

〈봉선의대封禪議對〉 19편은 무제武帝 때 나왔다.

〈한봉선군사漢封禪群祀〉 36편은 섭덕휘葉德輝(1864 1927)가 말하기를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 정의正義에서 〈오경통의五經通義〉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 왕위에 오른 임금이 태평시대에 이르면 반드시 태산泰山에 올라 봉封을 행하고, 양보梁父에 올라 선禪을 행하는데 천명을 받은 왕이 여러 신하의 요청에 따라 하늘에 태평시대를 고하고 모든 신의 공덕에 보답했다'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옛날에 봉선군사封禪群祀의 예禮가 있었다" 하였다.

장순휘가 말하였다. "〈관자管子〉에 있는 봉선편封禪篇과 〈사기〉에 있는 봉선서가 봉선에 관한 예禮의 유래로 숭상되었다. 옛날에 제왕이 태산泰山에 올라 흙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천신에 제사를 지내 하늘의 공덕에 보답한 것을 봉封이라 하고, 태산 남쪽 양보산梁父山에 올라 터를 닦고 지신에 제사를 지내 땅의 공덕에 보답한 것을 선禪이라 한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대전大典으로 진시황과 한 무제漢武帝가 거행한 적이 있다. 무제는 이 행사를 더욱 좋아하여 여러 신하에게 자문을 구한 바, 〈한서〉 아관전兒寬傳에 따르면 '옛날 순수巡狩와 봉선의 행사를 모방하고자 논의했을 때 대답한 학자가 50여인 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일이다. 본 예문지에 기록한 저서 〈고봉선군사〉 · 〈한봉선군사〉 외에 다시 〈봉선의대封禪議對〉 19편이 있다. 반씨 자신의 주注에 이르기를 '무제 때 나왔다' 한 것이 이것이다"

〈의주議奏〉 38편은 석거론石渠論에서 나왔고, 석거론은 석거각石渠閣에서 회의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자료이다. 석거각은 한나라 초기 승상을 지낸 소하蕭何(기원전 257 193)의 주도로 궁실을 건조하라는 명을 받아 수도 장안長安의 미앙궁未央宮 대전大殿 북쪽에 황실 도서를 저장하는 장소로 건설한 것이다. 이후 이곳은 오경박사의 강론 장소로 또 학술토론장으로 이용하였으며, 석거石渠 또는 석각石閣으로도 불린다. 전대소錢大昭(1744 1813, 전대흔錢大昕의 아우)가 말하기를 "〈서書〉 · 〈춘추春秋〉 · 〈논어〉에는 석거石渠 아래 논論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논論자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하였다. 이는 〈의주〉 38편 뒤에 반고의 주注가 단지 '석거石渠 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흠한沈欽韓(1775 1832)은 "석거에서 예禮를 논의하였고 당唐나라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하였다. 〈통전通典〉 예전禮典 33권 · 37권 · 41권 · 43권 · 49권 · 50권 · 52권 · 56권 · 59권 · 63권의 각 권 가운데 인용한 것이 보인다. 〈시기취소詩旣醉疏〉 · 〈예왕제소禮王制疏〉에도 석거론이 인용되었다" 하였다.

장순휘가 말하였다. "한나라 선제宣帝(기원전 91 49, 서한의 10대 황제 유순劉詢으로 무제의 증손) 감로甘露(선제의 여섯번째 연호) 3년 3월에, 일찍이 석거각에서 오경五經의 동이同異에 대해 강론하도록 여러 선비에게 조서를 내린 바가 있고, 본 예문지〈서〉 · 〈예〉 · 〈춘추〉 · 〈논어〉에 〈의주議奏〉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은, 당시 토론 과정이 다 끝나고 그 일을 주동한 대신이 이동異同의 결과를 기록하여 상주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회의가 끝나고 이른바 종합보고서가 있는 것과 같을 따름이다. 〈수지隋志〉(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석거예론石渠禮論〉 4권은 대성戴聖이 지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논술한 자가 바로 이 〈의주〉 38편을 말한 것은 아니다. 유림전儒林傳을 살펴보면 대성은 박사로서 석거각에서 토론한 적이 있다. 〈예론禮論〉 4권은 아마 대성이 스스로 자기 견해를 서술했거나 혹은 여러 작가의 말을 집록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의주〉와는 반드시 다른 저작물일 것이다."

이상 〈한서〉 예문지의 〈예禮〉는 모두 13인의 학자에게서 555편이 나왔고, 반고班固의 자주自注에 '〈사마법司馬法〉 1인 학자의 155편이 들어 있다' 하였다.

장순휘가 말하였다. "이 숫자는 스스로 〈사마법〉 일가一家와 권수를 내용에 넣어 새로이 합한 것이다. 〈예경禮經〉은 본래 17편이고, 여러 작가의 편수를 합계한 것은 실제로 554편에 그쳐 오히려 1편이 적다. '〈예〉는 모두 13인의 작가' 에서 3이라는 글자가 5라는 글자의 오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경전書經傳을 필사해보면 대개 숫자를 계산하는 글자에 오류가 많다. 작은 것에 가지런하지 못함이 있는데 힐책함이 부족하다."

〈역易〉에 말하기를 "부부 · 부자 · 군신 · 상하가 있고 예의禮義가 놓일 곳이 있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서괘序卦〉에 나오는 말이다. 조錯는 둔다는 뜻이다" 하였다. 장순휘가 말하였다. "〈역〉 서괘 원문에 '천지가 있은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다음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은 다음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다음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다음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다음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은 다음에 예의를 둘 곳이 있다' 하였다. 여기서는 요점만 간추리고 그 뜻을 취하여 인용한 것이다. 고서古書 중에는 항상 이와 같은 예가 있고 반드시 원문을 다 넣지 않는다. 부부 · 부자 · 군신 · 상하의 관계는 인륜 가운데 큰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비교하고 열거하여 삶 속에서 나오는 예의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제왕이 자질을 갖추고 문덕文德이 있어도 세상에는 손실과 이익이 있다. 주周나라 시대에 이르러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방지하고 일마다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예경禮經은 삼백 가지나 되고, 위의威儀(예법에 맞는 몸가짐)는 삼천 가지가 된다"고 하였다.

안사고가 말하기를 "자세한 예절로 소홀함을 방지하고 일마다 제도를 만들었다" 하였다. 장순휘가 말하였다. "〈예기〉 '표기表記 에서 공자孔子(기원전 551 479)의 말을 인용하여 '우하虞夏(순임금과 하나라)의 자질과 은주殷周(은나라와 주나라)의 문덕은 지극하다. 우하의 문덕은 그 자질을 이길 수 없고, 은주의 자질은 그 문덕을 이길 수 없다' 하였다. 대저 시대가 빠를수록 더욱 질박質樸하고 시대가 현재에 가까울수록 문화가 더욱 화려하니, 이것은 사회가 진화하는 이치이다. 〈사기〉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서 이사李斯(기원전 280 208, 진秦나라 시황제 때 승상을 지냄)가 말하기를 '오제五帝의 정치는 서로 중복되지 않았고 삼대(三代:하은주)의 정치는 답습하지 않았다. 각기의

13면으로 계속

10면에서 계속

이미 부군을 위해 원야原野의 묘제墓祭를 베풀고 또 재사를 설치하여 제사에 임하여 치재致齋할 곳을 갖추었으니 그 조선祖先을 받드는 마음에 유감됨이 없다 할 것이나 가만히 생각컨대 통한스러운 바가 있다. 부군이 고려조의 대승상大丞相이었으니 문장과 훈업勳業이 당시에 훤혁 赫히 빛났을 터인데 그 사적事蹟과 문헌이 자손에게 전하지 않고 국사國史에 드러나지 않았으니 어째서인가. 이에 반복해서 헤아려 생각해 보건대 문장이 전하지 않아 필경 연고를 모르므로 훈업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상상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대개 부군께서 지난 왕조王朝에서 말엽에 벼슬하였으되 이때 조저朝著가 맑지 못하고 뜻있는 선비가 관직을 버리고 은돈隱遯할 시기인지라 이에 부군이 곧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 은둔隱遁하여서는 다시는 관인官으로 자처하지 않은 고로 사서史書를 편찬하는 자가 부군을 국외局外의 일민逸民(백성처럼 몸을 감춘 어진이)으로 치부하고 사서에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이러하다면 부군의 맑은 바람과 높은 절기節氣가 족히 백세百世의 사표師表가 되었을 터인데 사서에 드러나지 않아 자손에게도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으니 어찌 심히 통한스럽지 않으리오. 하물며 지금 세상에서 부군의 세상을 돌아볼 진대 현세의 맑지 못한 것이 그 백배일 터인즉 자손된 자가 능히 부군의 뜻을 체득하여 세태와 더불어 끝까지 변화하지 말아 옛나라의 은일隱逸한 백성과 같이 될 뿐이라면 부군께 제사를 올릴 때 정령精靈께서 반드시 흔연히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게 그 후손이 있도다' 하실 것이며 자손으로서 갱장羹墻을 대하며 우모寓慕하는 도리가 반드시 선조와 아버지의 멀고 가까움과 사당과 원야의 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로써 어찌 서로 더불어 힘쓰지 않을 것인가. 그러하다면 종중 부로의 뜻은 다시 어떻겠는가. 옮겨 세우자는 의논을 처음 비롯한 것은 후손 재민載敏이고 일을 규획하고 재결처리하여 끝내 성취시킨 것은 운현雲鉉이며 일을 도와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우용宇容과 정보正輔이다.

무자년戊子年(1948) 중양重陽(음9월 9일) 후손 재춘載春 삼가 적음

후손 옥현玉鉉 삼가 씀